

울긋불긋 단풍의 걸정을 지나 비로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지금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숲속의 자연음에 들어
오세요. 숲속은 돌아가는 마법으로
온몸을 치유 하나 하나를 감지하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모든 것을 비우는
숲의 풍요를 수놓으며 기다리는 하얀
눈의 신비로 세계의 아름다움을 겁
더해 두르고 여행의 즐거움을 품고 키워
가는 숲의 신비를 느껴요. 느껴보세요.

온몸으로 느끼는 숲의 신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활짝 열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모든 것을 비우는 숲의 순환을,
지혜의 나이트를 한 겹 더 두르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숲의 신비를 느껴요.

느껴보세요.



지금,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숲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CONTENTS

06

숲의 선물

숲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끼다

– 숲의 선물, 감수성

08

숲의 초대

숲의 감성을 느끼고 향유하고 나누다

– 숲에서 영감을 얻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

12

숲의 만남

산처럼, 숲처럼 살고 싶어라

– 산악인 남난희



18

어떤 정보

등산도 레슨이 필요해!

– 전국 등산학교

20

나를 부르는 숲

메타세쿼이아 단풍에 인생샷을 건지다

– 대전 장태산휴양림

26

트렌드의 숲

센스 있는 플랜테리어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



Vol. 56 November | December 2023

48

숲속 우체통

50

숲이 전해온 소식



30

브런치@숲

연말을 더욱 달콤하게! 곱감 파티푸드

– 곱감 오픈 샌드위치 & 곱감 핑거푸드

34

숲 크리에이터

실을 엮어 무한 증식해가는 초록 에너지

– 밍예스, 유민에 작가

38

에코 프로젝트

그 많던 마스크는 다 어디로 갔을까?

–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메이크 임팩트

42

숲의 내일

이토록 매혹적인 숲 콘텐츠

–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46

콘텐츠의 숲

대중음악 가사로 숲을 만나다

– 가사부터 마음에 꽂히는 숲 플레이리스트



www.forest.go.kr

이번호 〈Magazine 숲〉을
휴대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3년 12월 05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T. 042.481.8843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우리는 한동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는 등 오감을 통해 숲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왔다. 그 결과 숲으로부터 받아온 선물이 기대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외에도 숲은 음이온의 보고이자 산소공장이며, 창조적 영감과 생태 감수성을 높여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원초적인 순수로 만들어진 숲. 그 숲에서 인류는 희망을 발견해왔고 지혜를 얻어왔고 미래를 설계해왔다. 숲이라는 환경이 인류에게 제공해온 감각적인 혜택, 그리고 그로 인해 획득하게 되는 감수성에 대해 소개해본다.

숲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끼다

숲의 선물, 감수성

글 매거진 숲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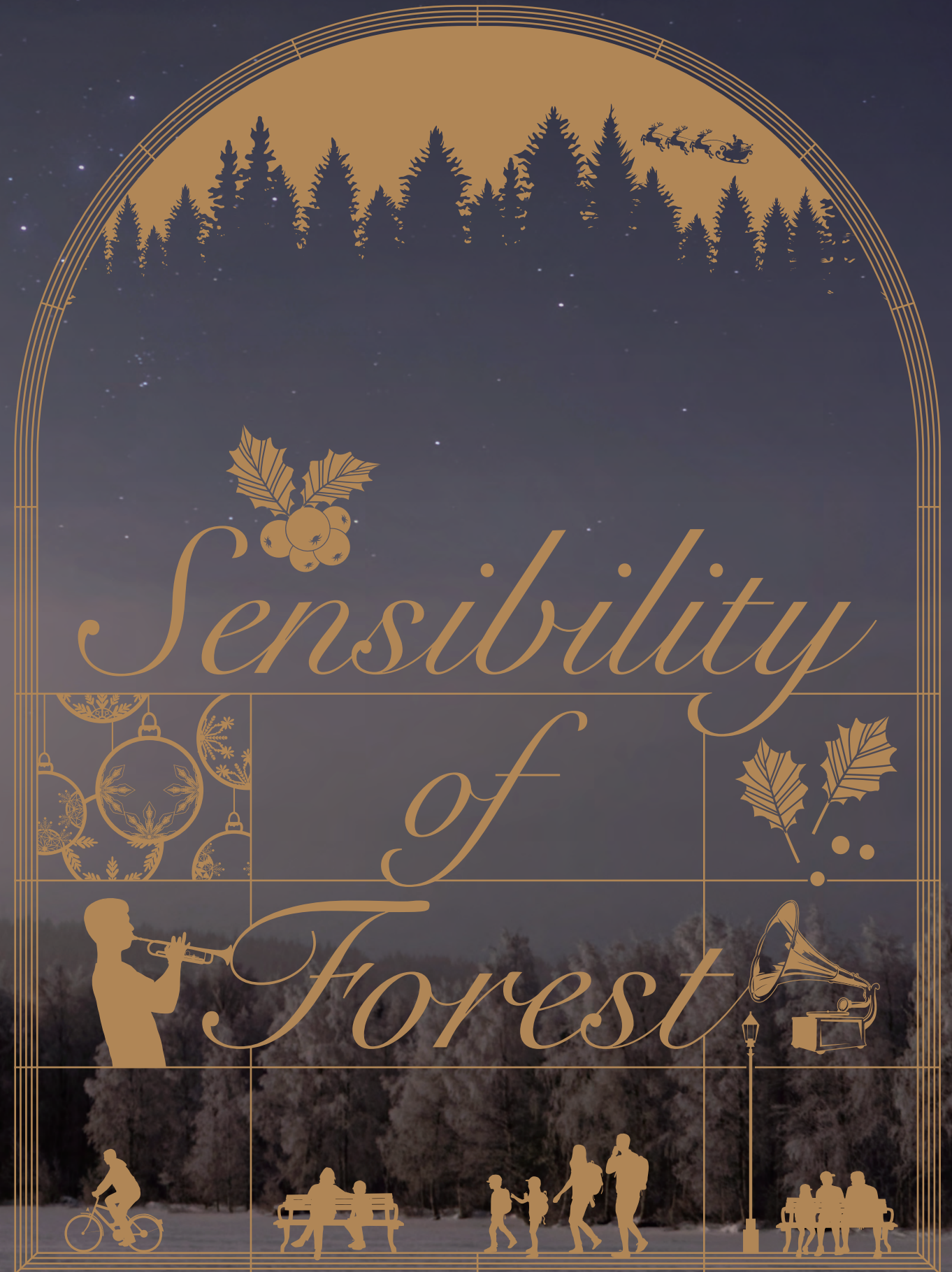
인류의 기원은 약 400~500만 년 전 동아프리카 사바나 숲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숲에서 나와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한 5,000여 년 전까지 인류는 역사의 대부분을 숲 안에서 살아왔다. 그래서일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이라는 환경은 인간의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치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숲에 들어가면 불안과 관계된 코티졸 등의 호르몬 분비가 낮아지고 엔돌핀과 같은 쾌적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 인체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데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알파파가 증가하고, 혈압과 맥박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숲이라는 환경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창조적 영감과 순수한 감수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와 음악가, 사상가는 숲에 들어가 그들 생각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다. 숲을 봄으로써 마음을 순화하고 숨어있던 감수성을 회복했던 것이다.

꼭 이런저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숲에서 감수성을 회복했던 일은 개인의 경험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숲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피처가 되어준다. 각종 오염과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바쁜 일상과 관계들로부터도 잠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준다. 수많은 잡념에서 벗어나 스스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것이다.

숲을 방문할 때 꼭 한 번 해보시라 권하고 싶은 것은 앞만 보고 걷지 말고 숲을 하나의 생명체로 관찰하고 존중하며 만나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숲을 만나면 생각지도 못한 자연의 지혜를 한 조각 얻을 수도 있고, 창조적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게 된다.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어수선하다면 감각의 안테나를 모두 세우고 숲으로 가벼운 산책을 떠나보자. 신선한 숲 공기로 리프레시하고 대자연 안에서 몸을 움직여 걷다 보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도 스르르 풀리고 잠들었던 감수성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



숲의 감성을 느끼고 향유하고 나누다

숲에서 영감을 얻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숲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독특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빛, 향기, 소리, 공기 등이 그것이다. 숲의 이런 요소들을 육감(六感)을 통해 느끼면 깊이 잠자고 있는 감성을 깨울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찍이 세계 곳곳의 아름답고 우아한 숲이 있는 곳에서는 대문호, 철학자, 시인, 예술가,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숲에 숨어들어 창조적 고독을 느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창조해낸 위대한 유산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영감을 준 숲이라는 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숲의 어원

먼저 숲의 어원부터 살펴보자. 숲은 수풀의 준말로 무성하게 짝 들어찬 나무를 뜻한다. 한자어로 쓰이는 비슷한 말로는 삼림, 산림 등이 있는데 삼림은 나무가 우거진 숲이라는 뜻이고 산림은 산과 그 안에 있는 숲을 뜻한다. 외국어로도 살펴볼까? 영어식 표현은 Forest. 어원을 살펴보면 프랑스 숲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0세기경 프랑스 장원제도에서 나온 이 단어는 수렵과 벌 채권이 영주에게만 제한되던 Foresta, 즉 산림지역을 뜻했다. 숲을 뜻하는 라틴어는 Silva. 특정 지역의 산림 속에 있는 나무를 뜻하고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Silvanus'는 숲의 신을 의미한다. 특이한 것은 사전에 산림을 ‘벼슬 하지 아니하는 숨은 선비’로 규정한 정의가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피해 산림에서 은둔하며 글 읽기를 즐기던 선비들을 은밀하게 지칭한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산림문하(山林門下)로 남아 조선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유럽의 언어에도 숲이 문화라는 용어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라틴어 Silvicultura, 영어 Silviculture, 불어 Sylviculture, 이태리어 Selvicoltura. 라틴어에서는 임학이 ars Silvatica 즉, 숲을 만드는 예술(영어 Forest culture, 독일어 Waldkunst)이란 말로 표현된다. 숲이라는 단어와 사상, 문화, 예술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우러져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숲속의 은둔자들

예로부터 정신 수양을 위해 숲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죽림칠현(竹林七賢).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왕조가 바뀔 때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죽림으로 들어간 일곱 명의 선비를 뜻한다. 이들은 부패한 정치권력에 등을 돌리고 숲에 들어가 청담(淸談)에 열중했다고 한다. 꼭 이들이 아니더라도 세속에 물들기 싫어 숲으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찾을 수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살며 학문을 닦았던 선비들, 서양 철학의 맥을 세운 위대한 사상가들, 숲을 거닐며 문학의 샘을 길어 올렸던 대문호들, 악상 발굴을 위해 쉬지 않고 숲 산책을 즐겼던 음악가들도 숲을 사랑했고 숲과 더불어 사는 것을 궁지로 여겼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는 숲의 위대한 찬미자였으며 헤세는 정원을 사랑하여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과 다양한 식물 관련 책을 펴냈다. 버지니아 울프 또한 정원을 사랑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정원 생활에 대한 기쁨을 일기나 작품, 친구들 편지에 적어 보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숲속 은둔자들이 있었을까? 향가, 속요 등에서 많은 문인은 숲을 예찬했고 조선시대 시조, 가사에 이르러서는 자연 예찬을 주로 하는 강호가도(江湖歌道)가 문학사조를 이룰 만큼 발달했다. 시조와 가사는 산수문학을 형성하여 자연의 풍류를 노래하기도 했는데 퇴계 이황은 도산십이곡을 지어 산수문학을 빛냈으며 노계는 전원락을 통해 생활공간으로서의 산수락을 표현하기도 했다. 숲속 은둔자들의 삶이 궁금하다면 지금이라도 자연 속의 삶을 노래한 문인들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그들은 숲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들이 숲에서 느끼는 평화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실감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숲은 수많은 생각들이 태어나는 장소가 되어왔다. 숲이 수많은 상징과 신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와 새, 이끼와 버섯, 수많은 동식물, 바람과 햇살이 모두 살아있는 유기체를 이루는 숲은 바라보고 관찰하기만 해도 수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준다. 숲을 이루며 사는 생명체들을 통해 사회를 이루며 사는 우리를 성찰할 수 있고, 이득을 주고받으며 사는 곰팡이균과 버섯을 통해 공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구부러진 나무, 꺾인 나무, 쓰러진 나무, 돌을 품은 나무 등 다양한 나무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삶의 고난을 극복해가는 힘을 배울 수 있고 계절마다 순환하는 숲을 바라보며 존재의 유한성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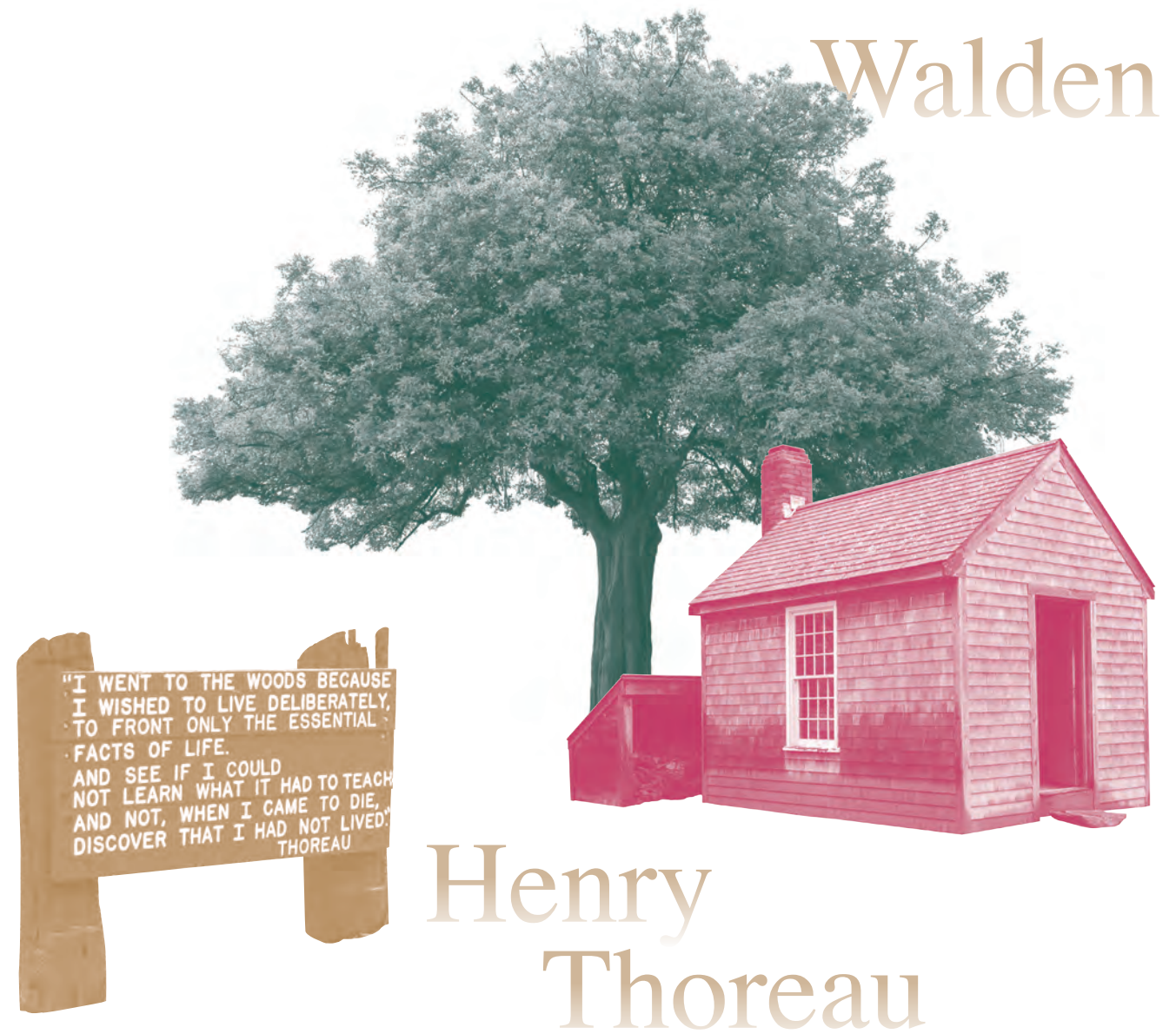
이런 정서적 감흥이나 생각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숲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단숨에 정상을 정복하듯 숲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느릿느릿 숲의 생명력을 느끼며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숲을 온전히 느끼며 걷다보면 바쁘게 뛰어다닐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욕구가 달라지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지금 숲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독서를 통해 숲에서 태어난 여러 생각을 만나볼 것을 권한다. 그중 가장 권하고 싶은 책은 숲의 철학자로 손꼽히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다.

숲을 온전히 느끼며 걷다보면
바쁘게 뛰어다닐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Forest and Philosophy



Walden



Henry Thoreau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소로와 월든

숲으로 들어간 철학자 중 현대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국의 위대한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소로는 인생의 정수를 맛보기 위해 콩코드 숲 월든 호수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 살았다. 소로는 이후 2년간 스스로 숲에서 살았던 경험을 엮어 자연과 깊은 연결을 추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책, 월든을 펴냈다. 그는 책을 통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사회적 규범과 통념에 따라 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단순한 삶을 살며 진정한 삶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더 깊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가 이런 삶을 글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실천했다는 것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소로의 메시지는 바쁜 일상에 자신을 잊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숲에는 인간의 생리적인 양식과 정신적인 양식이 함께 묻혀있다. 숲으로 나가서 한나절을 걷거나 시로, 문학으로, 철학으로, 음악으로 정리된 숲의 지혜와 영감을 만나보도록 하자. 잠시 잠깐 숲을 만나 숲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삶은 온전한 방향과 감각을 되찾을 것이다. 🌲

Mountaineer Nam Nan Hee

약속 장소는 쌍계사 주차장이었다. 산을 오르며 인터뷰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을 단독 종주하고 여성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강가푸르나봉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한국인 최초로 알베르 마운틴 어워드를 수상한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산행을 하나?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손을 흔들며 걸어오는 그녀의 해사한 얼굴을 보자 걱정은 씻은 듯 사라졌다. 숨소리 한 번 흔들리지 않고 산을 타는 사람, 그러나 주변을 배려하며 멈출 줄도, 기다려줄 줄도 아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산에 깃들어 살며 날마다 숲을 닦아가는 남난희의 삶을 지면을 통해 만나본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Studio KENN

산처럼, 숲처럼 살고 싶어라

지리산에 깃들어 살며 산이 삶이 된 산악인, 남난희

산 속으로 들어서면 산을 볼 수 없다.

그동안 산에 오르기는 했으나 산을 볼 줄 몰랐다.

산 아래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제야 산이 보인다.

그동안의 산이 항상 목마른 열망 덩어리였다면,
이제 비로소 편안한 산을 만난 것이다.

그동안의 산은 오로지 오르는 것만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오르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다.

그동안의 산은 나를 알피니스트로 선택했지만,
그 이후의 산은 나를 생활인으로 선택해 주었다.
산을 버려 산을 얻었다.

—남난희 ‘낮은 산이 낫다’ 중—

알베르 마운틴 어워드에서 다시 마주한 백두대간

남난희는 백두대간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명사다. 1984년, 최초로 76일간을 걸어 백두대간을 단독 종주한 인물이니까. 그 후로 그녀는 백두대간 트레일을 되살리기 위해 강연, 제언, 투고 등 다양한 일을 해왔다. 그러나 그녀도 몰랐다. 이런 열망이 2022년 알베르 마운틴 어워드 시상대에 그녀를 세워놓을 줄은 말이다.

알베르 마운틴 어워드는 무슨 상인가? 벨기에 국왕이자 산악인 알베르 1세를 기리고자 만들어진 이 상은 산악계의 노벨상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인 상이다. 등반가들을 비롯하여 산악 환경보호, 고산 등산 전문 의사, 산악 저술가, 지리학자, 산악문학가들에게 수여된다.

“2년 전쯤인가? 유럽에서 한반도의 산을 알리기 위해 매거진을 만드는데다가 원고 청탁이 들어왔었어요. 아, 이런 기회를 통해 세계에 백두대간을 알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산줄기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갈 수 없다, 남북의 백두대간을 다시 이을 수만 있다면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거다’, 이런 취지로 원고를 써서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베르 마운틴 어워드 후보로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1년 정도 백두대간 관련 자료를 엄청나게 요청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서 전달했죠. 그렇게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한국에서는 첫 번째로 수상자가 된 거예요.”

수상식에 참여한 그녀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한다. 5층 건물 뚝뚝히 한반도의 백두대간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난희는 그곳에서 중주 당시에는 가지 못했던 북한 의 산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었다. 대중을 상대로 강연도 했다. 철조망이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고, 그 앞에서 언젠가는 이 길을 모두 걷겠다 약속했노라고. 그러나 이제 나는 늙어가고 있고 길은 언제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끊어진 백두대간을 이을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밥 먹듯 산에 오르고 가족을 보듯 숲을 보듬는 삶

한바탕 유명세를 치른 그녀지만 만나면 자연인 그 자체다. 매일 아침 동이 틀 무렵 집에서 나와 쌍계사 뒤 불일폭포, 불일평전으로 3~4시간 산행을 한다는 남난희. 94년 지리산으로 들어와 삶을 꾸린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는 루틴이다. 혹자는 등반을 위한 훈련이 아닐까? 추측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숨 쉬듯, 밥 먹듯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등반할 때는 거기에 미쳐서 살았었지. 얼마나 자극적이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것이 산의 일부였다는 것을 몰랐어요. 암벽, 산의 일부잖아요? 빙벽도 산의 일부일 뿐이야. 그런데 그때는 그게 산의 전부인 양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이제 자연에 와서 살다 보니까 비로소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는 일이라서일까? 숨 한 번 흐트러지지 않고 산을 오르는 그녀는 주위 온갖 것에 관심이 많다. 바람에 가지가 부러진 나무는

매일 아침 3~4시간씩 산행을 하며 숲과 인사를 나누는 남난희.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숨 쉬듯, 밥 먹듯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2



1

1
알베르 마운틴 어워드를 수상하며 한바탕 유명세를 치른 산악인 남난희. 그러나 산에 사는 그녀는 자연인 그 자체다.

2
매일 서너 시간 산을 오르며 간절히 기도한다. 세상 만물이 모두 편안하게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사람이 손을 댄 것 같은 흔적을 보면 ‘거, 사람이 참 나쁘네’ 나무 입장에서 흉도 같이 봐준다. 숲에, 나무에 인사를 건네고 ‘초단이’ ‘홍단이’ 나무마다 이름을 붙여주는가 하면 멧돼지들에게는 ‘내가 아침 산행을 30분 늦게 맞출 테니 너도 30분 먼저 들어가. 우리 가능한 한 마주치지 말자’ 협상도 한다. 산에 있는 모든 생명,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숲을 오르는 발자국 하나하나에는 가슴 속 간절한 기도를 담는다. 세상 만물이 모두 편안하게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산을 오르는 것은 인생의 길과 다르지 않아요. 산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또 하나 같은 것은 같이 걸어줄 수는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도 같이 살아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신도 걸으면 좋겠습니다

남난희는 94년 이후부터 삶의 터전을 내준 지리산에 깃들여 살고

있다. 지리산학교에서 걷기 교실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는데 15년 정도 출근 일을 해온 후 현재는 휴강 상태다. 산을 오르고 하염없이 걷는 것을 일로 삼은 사람, 그런 그녀는 왜 그렇게 즐기치게 걷기를 강조할까?

이 질문에 그녀는 대뜸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나는 걷는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프랑스 기자에서 정년퇴직한 후 우울증에 빠졌던 베르나르 올리비에에는 산티아고 길을 혼자 걸으며 치유의 힘을 경험한 후 걷기에 대한 책을 펴냈다. 또한 ‘세이유’라는 학교를 세우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걷기로 치유해보자는 취지로 순례를 시작했다. 결과는 대성공.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재범 확률은 80% 이상인데 반해, 걸었던 아이들의 재범률은 25%로 줄었던다.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웃으며 그녀가 대답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법무부, ebs가 힘을 합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저도 지리산 둘레길을 한 아이와 함께 걸었죠. 3주 동안 텐트를 치고 걷는데 처음에는 벽처럼 느껴지던 아이가 5일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말도 한마디 안 하던 아이가 몇 킬로 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관심을 가지더라는 말이죠. 역시 아이들은 성취감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걷기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보통은 몸과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분들이 걷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서서히 하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다 치유의 과정인 거죠.”

숨이 턱에 차던 사람들이 점점 좋아져 지리산 종주까지 하게 되고 마음이 다쳐 온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의 빗장을 푸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 물론 가끔은 산악인으로 알려진 그녀와 걷는 것이 두렵다고 겁을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다. 겉에서 본 남난희는 5km도 50km도 얼마든지 맞춰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니까.

나만의 백두대간은 어디?

매일 3~4시간 산길을 걷는 그녀지만 가끔은 먼 숲을 걷기도 한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미국 3대 트레일 코스 중의 하나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CT)을 걸었고 캐나다의 웨스트코스트 트레일도 다 걸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길들을 걸어봐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1월 초부터는 지리산 둘레길을 대략 15일 정도 걸을 예정이고 그 후부터는 해파랑길을 걸을까 한단다. 그렇다면 백두대간은? 장난처럼 묻는 질문에 다시 한 번 화사하게 웃는다.

“84년, 제가 백두대간을 걸었을 때만 해도 ‘백두대간’이라는 말조차 없었을 때였죠. 86년부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산 좀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로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무수한 사람들이 백두대간을 그렇게 걷고 싶어 하면서도 왜 길을 잇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지 안타까워요. 백두대간, 저는 이미 대여섯 번 걸었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 저의 화두이자 숙제랍니다.”

그녀는 젊은 친구들에게 ‘너만의 백두대간을 걸어라’라고 자주 힘주어 말한다. 남난희에게 백두대간은 산줄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젊은 날 자기가 좋아하는 목표를 진짜 온몸을 다 바쳐 한번 이루어보면 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이십대의 그녀가 그랬듯 말이다.

이제부터는 찬찬히 우리나라의 길을 걷고 싶다는 그녀에게 산림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동서트레일 소식을 전했다. 26년 개통할 거라고 하니 꼭 한 번 걸겠다며 반긴다. 이미 백두대간을 걸었고, 수없이 정상에 서기도 했고, 세계가 알아주는 상도 받은 그녀지만 아직도 걸어야 할 길은 끝이 없나 보다. 물론 그 길은 단숨에 갈 수 없을 것이다. 한 발 한 발 끊임없이 걸어야 종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숲과 하나 되어 살며 백두대간이라는 큰 숲을 평생의 뜻으로 품은 사람. 더 이상 정상의 욕망에 시달리지 않고 산처럼, 숲처럼 살고 싶은 사람.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삶을 덩달아 닳고 싶어졌다. ☺



“등산할 때는 거기에 미쳐서 그것이 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빙글스 산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등산도 레슨이 필요해! 전국 등산학교

체계적인 등산 교육으로 숲을 더 가까이 느껴요!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전국 등산학교 중 활발한 교육을 펼치는 곳은 20여 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등산학교, 지역의 대전, 대구, 부산, 지리산, 한라산 등산학교 등이 있다. 이중 등산학교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것은 국립 등산학교와 코오롱 등산학교다. 산림청은 이외에도 조만간 문을 열게 될 밀양, 중부권 등산학교를 비롯하여 전국 권역에 국립 등산학교를 설립해갈 계획이다. 옷 입는 법, 배낭 싸는 법부터 바위 딛는 법, 암벽·빙벽 오르는 법, 로프 사리는 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등산학교들을 소개해본다.



• 국립 등산학교 •

국립 등산학교는 산림청이 설립한 등산·트레킹 전문 교육기관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8년 개교한 등산학교는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해 있으며 실내 인공암벽장, 강의실과 식당, 생활관 등을 갖추고 있다. 체계적으로 받는 등산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안전캠프, 등산지도사, 암벽등반, 산악구조교육 등으로 알차게 꾸려진 국립 등산학교의 커리큘럼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 코오롱 등산학교 •

1985년 북한산 '레스코 등산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한 코오롱 등산학교는 고전적인 등반 스타일을 벗어나 새로운 장비와 기술, 등반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운영되고 있다. 35년 동안 20,00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한 등산학교는 스마트등산교실, 장거리하이킹, 해외 장거리하이킹, 독도법, 스마트폰GPS과정, 암릉기초반, 암벽반, 정규반, 암벽연수반, 빙벽연수반, 설상반 등 세밀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와 교육과정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Mountaineering Schools

지속적으로 산림복지 수요가 증가해가고 있는 요즘, 산림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밀양과 보은군 2곳에 국립 등산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보은군 중부권 국립 등산학교는 2024~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밀양 등산학교는 2024년 1월 개관할 예정으로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등산 교육을 보급하여 올바른 등산·트레킹 문화를 선도해갈 국립 밀양/보은 등산학교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한국 등산학교 •

한국 최초로 등산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 등산학교는 1974년에 세워졌다. 이후 현재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한국 등산학교는 그동안 유수의 전문 산악인들을 배출해왔으며 약 12,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경찰특공대, 경찰산악구조대,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앙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및 산악교육을 담당해오기도 했다. 정규반, 암벽반, 동계반, 정규심화반, 특별과정으로 나뉜 교육과정을 잘 살펴보자. 어려워만 보였던 등산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한라산 등산학교 •

2005년 대한산악연맹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한라산 등산학교에서는 일반 등산 이론부터 최신 등산 기술까지 주 교육장인 한라산 일대에서 훈련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정규반 17기, 동계반 3기, 암벽반 6기를 배출했으며 출신 산악인들이 제주 지역 구조대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뭐니 뭐니 해도 한라산 등산학교의 백미는 제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한라산 정상을 넘어 등산하는 '동서종주'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제주 '동서종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라산 등산학교의 문을 두드려보도록 하자.

메타세쿼이아 단풍에 인생샷을 건지다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

“와~!” 여기는 요정의 나라인가 북유럽의 어디인가. 키다리 거인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한창 색깔 옷을 갈아입는 중이다. 적갈색으로 물들어가는 숲속을 걸으니 세상이 온통 수채화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메타세쿼이아 숲이 있구나. 그 이국적인 풍경에 너도 나도 카메라를 꺼내든다. 스카이웨이, 출렁다리, 생태연못... 어디든 포토존 아닌 곳이 없다. 누구나 아무데서나 품만 잡으면 인생샷을 건지는 곳. 여기는 장태산자연휴양림이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신중식

대전의 남쪽 끝 장태산자연휴양림. 이색적인 메타세쿼이아 단풍 사진이 SNS를 타면서 일약 가을의 핫 플레이스로 등극한 곳이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로 유명한 곳은 여러 군데 있지만 이처럼 숲으로 장관을 이룬 곳으로는 단연 장태산휴양림을 꼽는다.

다른 나무들보다 늦지만 화려한 메타세쿼이아 단풍

11월 하순, 휴양림에 들어서자 첫눈에 압도당한다. 엄청난 높이의 나무들. 키가 30m를 넘는다니 10층 건물보다도 높다. 그런데 어쩔 이리도 구부러짐 하나 없이 수직으로 짝짝 솟을 수가 있을까. 그 자체가 이미 감동인데, 이런 나무들이 숲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것이다. 뿐인가. 그 나무들을 물들인 적갈색 단풍. 거기에 투명한 햇살이 쏟아지면 단풍은 더 눈부시게 빛나 숲은 온통 붉은 세상이 된다. 아! 황홀경이란 이런 것인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불타오르는 메타세쿼이아들 속에 있으면 마치 우렁찬 화음을 내뿜는 대합창단 가운데로 들어온 듯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든다. 가을의 절정.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이다. 휴양림 곳곳 더 멋진 코스로 가 보자.

스카이다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영화 같은 풍경

장태산휴양림의 주요 탐방 포인트는 만남의 숲, 스카이웨이와 스카이다워가 있는 숲속어드벤처, 그리고 출렁다리, 생태연못, 형제

바위 전망대, 둘레길(등산로) 등이다. 입구에서부터 메타세쿼이아 숲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차나 간식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만남의 숲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우뚝 솟은 스카이다워가 나타난다. 스카이다워는 스카이웨이를 통해 허공을 빙빙 돌아서 올라가야 하는데, 높이가 있는데다 걸을 때마다 나무 데크가 조금씩 흔들거리니 약간의 아찔함도 즐길 수 있다. 땅에서 위로 올려다만 보던 메타세쿼이아를 하늘로 걸어 올라가면서 나무와 어깨를 견주기도 하고 나뭇잎이 얼굴을 스치기도 하며 보니 점점 숲과 하나가 되는 기분이다. 흔들흔들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꼭대기. 높이 27m의 스카이다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하다. 영화에서나 보던 침엽수 숲! 더구나 이렇게 단풍에 물든 메타세쿼이아 숲을 내려다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생 경험이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니니...

출렁다리 위 데크 전망대는 최고의 인생샷 포인트

이제 카메라만 대면 그림이 된다는 장태산휴양림에서도 최고의 포토존으로 가 볼 차례다. 스카이웨이에서 연결되는 출렁다리를 건너 계단을 15분쯤 올라가면 나타나는 데크 전망대가 그곳이다. 경사가 있어 꽤나 숨을 몰아쉬어야 하지만 그 정도의 고생은 아무 것도



1



2

아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가히 환상적! 앞서 스카이다워에서 본 풍경보다도 두 배, 세 배 더 멋지다고 하면 상상이 될까. 여기를 오르지 않았다면 장태산휴양림을 가 봤다고 할 수가 없다. 벌써 인증사진 찍으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다. 카메라 각도가 잘 잡히는 포인트인데다 이국적 정취의 메타세쿼이아 숲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고 외치는 곳이다. 그래서 사진사는 데크에서 앵글을 잡고, 주인공은 데크 바로 아래 바위에 올라서서 세상 다 가진 품을 잡아야 한다. 그게 여기서의 룰이다. 쑥스러워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로부터 '품 좀 잡아 봐요!' '팔을 하늘로 쭉 뻗어요!' 하는 기분 좋은 오지랖이 날아온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델처럼 과감하게 품을 잡으면 찰칵! 인생샷이 완성되는 것이다.

1년 내내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전의 명소

인생샷을 남겼으면 다시 출렁다리를 건너 내려와 생태연못을 만난다. 이 연못 덕분에 장태산휴양림은 여름에 와도 청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지금 연못은 단풍에 물든 나무들이 수면에 비쳐 한 폭의 그림이다. 연못가에 정자가 있으니 잠시 쉬었다가 안쪽으로 쭉 이어진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산책하는 것도 좋겠다. 이 생태연못에서부터 등산로도 이어진다. 20~30분쯤 가파르게 오르면 전망 좋은 형제바위가 있고 더 오르면 누각(장태루)이 있는 정상에

**30m 이상의 키다리 메타세쿼이아가
즐비한 장태산휴양림.
투명한 햇살이 쏟아지면 단풍은
더 눈부시게 빛나 숲은 온통
황금빛 세상이 된다.**

1
수직으로 짝짝 솟은
메타세쿼이아가 장관을 이루는
장태산 휴양림. 숲을 걷기만 해도
그 이국적인 풍경에 넋을 잃는다.

2
스카이웨이와 스카이다워,
출렁다리, 생태연못, 형제바위
전망대, 둘레길이 다양한 숲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닿는다. 장태루에서 계속 능선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빙 돌면 약 1시간 30분 코스의 등산이 된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휴양림전시관에 둘러볼 것을 권한다. 식물과 곤충 등에 관한 주제로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아 자연학습으로 좋다. '숲속의 집'이나 '산림문화휴양관'에서 숲의 정취를 만끽하며 숙박을 할 수도 있고, 캠핑을 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도 훌륭하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입장료도 없고 주차료도 없으니 1년 내내 탐방객이 끊이지를 않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휴양림으로 탄생한 장태산자연휴양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멋진 휴양림이 한 개인에 의해 일구어졌다는 사실이다. 휴양림 입구에 흉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숲을 일군 임창봉 선생(1922~2002)이다. 평생 나무를 사랑한 선생은 건설업으로 모은 재산을 털어 1972년부터 장태산 자락에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자연 상태의 잡목 숲을 배경으로 밤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 유실수와 소나무 등을 심었고, 특히 미국에서 들여온 메타세쿼이아를 집중 배치하여 개성을 부여했다. 그 숲이 얼마나 좋았는지 마침내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휴양림으로 지정,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전의 명소가 되었다. 그 후 2002년 대전광역시에서 휴양림을 인수하고 편의시설을 늘리는 등 리모델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룡과 함께 멸종된 줄로 알았던 메타세쿼이아가...

메타세쿼이아는 은행나무, 소철과 함께 살아있는 화석(化石)으로 불리는 나무이다. 공룡과 함께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메타세쿼이아가 중국 양쯔강 상류에서 발견된 것이 1940년대였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는 그 이후에 퍼진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임창봉 선생 같은 선구자가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메타세쿼이아는 침엽수인데도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낙엽침엽수로 유독 단풍이 늦다. 대부분 나무들의 잎이 떨어질 즈음에야 메타세쿼이아는 비로소 단풍의 절정에 든다. 다른 나무들과 단풍 시기가 다르다 보니 단풍객들은 자칫 때를 놓칠세라 마음을 졸이게 된다. 사실 올 가을에는 전국적으로 단풍 상태가 많이 아쉬웠다. 단풍이 들기도 전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이 많았고, 단풍이 들어도 빛깔이 그리 선명하지 못했다. 지구 온난화, 유례없는 10월 이상 고온 때문이라고 한다.

메타세쿼이아가 붉게 물들면 정녕 가을이 깊었다는 뜻이다. 하루가 저물녘에 아름다운 노을이 있듯이, 장태산 메타세쿼이아의 늦은 단풍은 저물어가는 한 해의 노을이 아닐까. 저 풍성한 잎들이 하나 둘 떨어지면 12월이 되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 것이다. 흔들리는 잎새 하나하나가 애뜻하다. 하얗게 눈 덮인 메타세쿼이아 숲도 보고 싶다. 🍂

3

임창봉 선생이
1972년부터 20만 그루를
심고 가꾸어 일구어낸
장태산휴양림.

4

낙엽침엽수인 메타세쿼이아는
유독 단풍이 늦어 숲에
단풍이 들면 겨울이
가까워짐을 예감할 수 있다.

5

적갈색의 황금빛을 자랑하는
메타세쿼이아의 늦은 단풍은
저물어가는 한 해의 노을처럼
찬란하다.



QR코드를 찍어 장태산의
황금빛 단풍을 감상해보세요!



Christmas Planterior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

식물을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는 인테리어 트렌드. 집에 있는 반려식물을 장식해서 활용해도 좋고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용으로 출시되는 식물을 새로 들여도 좋다. 쉽고 간편하게 공간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 플랜테리어로 공간에 변화를 주면 어떨까?

집안에 있는 화분 2~3개를 장식하거나 자연물로 리스를 만들면 따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지 않아도 화사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반려식물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소개한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유튜버 jungla정글라

센스 있는 플랜테리어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징글벨이 울리는 연말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때는 집안이나 카페, 사무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 크고 아름다운 트리,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조명 등 화려한 인테리어에 도전해보고 싶지만 쉽지는 않은 일. 이럴 때는 집 안에 자리 잡은 반려식물들에게 눈길을 돌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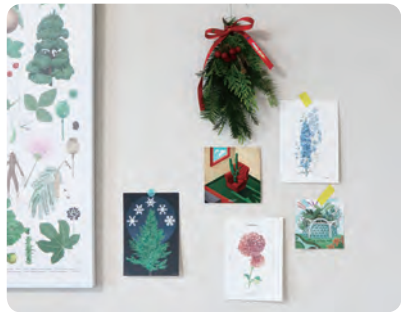
가장 간단한 팁을 주자면 반려식물 화분에 간단한 장식을 해보라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상징하는 컬러는 그린과 레드. 반려식물은 대다수가 그린 컬러니까 강렬한 레드로 화분에 옷만 만들어 입혀줘도 분위기가 한결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간단한 오너먼트, 양말이나 별 장식을 달면 크리스마스 무드가 업그레이드된다. 원가 반짝이는 것을 더하고 싶다면 간단한 LED 전구등도 살짝 걸어보자. 반짝이는 등만 바라봐도 연말의 설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반려식물이 없는 집이라면 생화를 활용하여 간단한

리스를 만들거나 꽃집에 들러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용 식물을 들여놔도 좋겠다. 포근한 빨간 잎으로 '크리스마스의 꽃'이라는 별명을 가진 포인세티아, 빨간 열매와 초록 잎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베리, 예쁜 트리의 모양을 가진 호주 삼나무, 아라우카리아 등은 이 즈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반려식물이다. 이런 식물들은 별 다른 장식 없이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집안을 화사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점은 활용되는 식물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하루 종일 LED 전구를 켜놓으면 식물도 뜨거워한다. 물주는 것, 햇빛을 쬌이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다면 OK!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초록초록 예쁜 반려식물들과 함께 연말을 자축해보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예쁘게 단장한 식물들에게 올 한 해도 수고했어! 늘 곁에 있어주어 고마워! 라고 다정하게 말도 건네면서.



소품을 이용한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 팁
by 유튜버 jungla정글라



벽면 활용하기

좁은 공간에 플랜테리어를 하고 싶을 때는 벽면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작가의 식물 그림을 걸어두거나 목부작 등을 걸고 그 사이에 리스나 미니 스와그를 슬며시 걸면 제법 잘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가 된다. 원래 있던 소품들을 그 자리에 두어도 되기 때문에 공간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분위기를 색다르게 만들 수 있다.



생화로 트리 만들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조화 트리보다 생화를 놓도록 해보자. 크리스마스 리스 소재로 쓰이는 편백, 더글라스, 삼나무, 구상나무와 같은 잎을 실내에 두면 은은하게 숲 향기가 퍼진다. 생화가 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조화와 비교할 수가 없다.



크리스마스 테라리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둘러앉는 테이블이나 선반에도 간단한 연출이 가능하다. 작은 유리병에 크리스마스 컨셉의 소재를 가득 꽂아두고 빨갛게 익은 망개 열매를 달아주면 심플하지만 귀엽고 깔끔한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의 꽃, 포인세티아 가꾸기

포인세티아는 연말 플랜테리어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반려식물이다. 새빨간 잎과 초록이 어울려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식물이 과습과 추위에 취약해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포인세티아는 겨울철에도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맞춰줘야 한다.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과습에도 약하므로 흙이 안쪽까지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좋다. 흔히 알고 있는 포인세티아의 붉은 부분은 꽃이 아니라 잎인데 이런 붉은 잎은 겨울에만 볼 수 있으며 봄이 되면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간다. 붉고 생기 있는 잎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10월부터 12시간 이상 완전하게 차광된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 연말 시즌에도 저녁에서 아침까지 완전히 차광하고 낮에 환기를 해준다면 크리스마스 내내 붉고 건강한 잎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Q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의 정의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최근에는 식물로 인테리어를 하는 플랜테리어가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단순히 실내에 식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식물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공간 디자인까지 완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식물로 공간 연출도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를 위한 꿀팁이 있다면요?

A 저는 공간의 극적인 변화보다 소소한 변화를 선호합니다. 대형 소품이나 인조 트리를 사서 극적인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럴 경우 원래 있던 가구나 물건을 재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환경에 크리스마스 리스나 식물 소재로 살짝 포인트를 주는 팁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스팟이나 자리에 포인트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리면 됩니다. 생화 트리를 들어거나 작은 스탠드 조명, 손바닥만 한 크리스마스 리스만 놓아도 공간 분위기가 아늑해질 거예요.

Q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 새롭게 반려식물을 들인다면 어떤 종류가 좋을까요?

A 붉은 잎을 자랑하는 '포인세티아'가 가장 유명하고요. 아라우카리아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에 좋아요. 삼나무 잎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키워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주의할 점은 잎과 줄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거운 장식이나 전구를 달면 줄기가 처지고 식물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미니 리본이나 경량 무게의 장식을 몇 개만 달아주어도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Q 거실이나 안방, 주방, 베란다 등 각 공간에 맞는 식물을 추천해주세요.

A 공간별로 빛, 온도, 통풍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식물이 있습니다. 거실이 실내에서 가장 밝은 곳이라 가정하면 관엽식물과 고사리, 난초 식물을 키우실 수 있고요. 거실에 비해 빛과 통풍의 정도가 약한 침실에는 스파트필름 처럼 잎이 작고 키우기 쉬운 식물을 추천해요. 실내 공간에서 가장 공기의 질이 떨어지는 주방에는 스킨답서스를 추천합니다. 스킨답서스는 주방에서 많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제거에 도움을 주거든요.

Q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인테리어 장식품과 식물을 활용한 플랜테리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A 연말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반 인테리어는 플라스틱을 주 재료로 한 것으로 자칫 유해한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식물이 추가되는 플랜테리어는 자연이 중심이 되는 공간 디자인이에요. 좀 더 친환경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죠. 조금 덜 화려하더라도 실내에 자연을 들이는 소중한 경험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QR로 유튜버 jungla정글라
(어쭈구리 식물 좀 하네 저자)의
크리스마스 플랜테리어를 만나보세요.

연말을 더욱 달콤하게! 곶감 파티푸드

곶감 오픈 샌드위치
&
곶감 핑거푸드

꾸덕하게 말려두면 겨울 내내 꺼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간식 곶감.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크림치즈나 견과류와 곁들여 핑거푸드로 연출하면 연말 손님 초대에도 손색없는 요리가 된다. 주황빛 색감 때문에 오픈 샌드위치에 올려도 좋고 달콤한 맛으로 견과류, 치즈에 곁들여도 좋다. 곶감, 이번에는 파티 요리로 즐겨보자.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Studio KENN





Dried Persimmon Open Sandwich

꽃감 페스토를 이용한 오픈 샌드위치

재료 Ingredients

꽃감 페스토(꽃감 100g, 식용유 1T, 설탕 1t, 물 50g, 레몬즙 1~2방울), 곡물빵 4조각, 크림치즈 100g, 믹스너츠 조금, 계피가루 조금

만드는 법 Recipe

- ① 꽃감은 꼭지를 떼고 씨를 뺀 후 썰어서 준비한다.
- ② 냄비에 꽃감 페스토 재료를 넣고 꽃감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1~2분 저어가며 끓인 후 마지막에 레몬즙을 뿌려준다.
- ③ 끓인 꽃감 페스토를 블렌더에 살짝 갈아주고 물기가 보이면 다시 살짝 가열하여 수분을 날린다.
- ④ 곡물빵을 토스트하여 준비한 후 크림치즈와 식힌 꽃감 페스토를 입체감있게 세워 바른다.
- ⑤ 믹스너츠를 부셔서 위에 뿌려주고 그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면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꽃감 오픈 샌드위치 완성.

/ 꽃감 페스토에 햄이나 스모크드 치즈를 곁들여도 훌륭한 브런치 요리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해보시길.



꽃감 오픈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Dried Persimmon Finger Food

꽃감 크림치즈 호두말이 핑거푸드

재료 Ingredients

꽃감 2개, 호두 25g, 크림치즈 50g

만드는 법 Recipe

- ① 호두는 산화되기 쉬우므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물에 2~3분 정도 끓인 후 120℃ 오븐에 7분 정도 구워 준비한다.
- ② 꽃감은 꼭지를 떼고 씨를 뺀 후 반듯하게 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 ③ 펴 놓은 꽃감에 크림치즈를 넉넉하게 바른다.
- ④ 그 위에 구운 호두를 모양을 잡아 넣은 후 동그랗게 말아준다.
- ⑤ 랍에 싸서 냉장고에 굳어질 때까지 둔다.
- ⑥ 냉장고에서 굳어진 꽃감 호두말이를 꺼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완성.

/ 같은 순서로 호두 대신 사인머스켓을 넣어주면 상큼한 꽃감 핑거푸드가 완성된다.



꽃감 핑거푸드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실을 엮어 무한 증식해가는 초록 에너지

밍예스, 유민예 작가

식막한 도시 안에 꾸준하게 증식해가는 초록 에너지가 있다. 나무나 풀이나 이끼냐고? 아니다. 이것은 실을 엮어 성장해가는 텍스타일의 초록이다. 핸드 크래프트 위빙 방식으로 조각 패널을 만들고 그 패널들을 이어 붙이며 확장해가는 이끼와 줄기와 거대 식물들. 공간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식물 오브제들은 회색의 빌딩을, 도시를 대담하게 잠식해간다. 밍예스 작가가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따스하고 발랄한 초록 에너지를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자.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밍예스 작가

텍스타일 방식으로 표현하는 초록

지치지 않고 꾸준히, 경계를 넘어 끝없이, 작가 밍예스의 작업 방식은 식물의 성장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공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적응해 가며 끊임없이 증식해가는 식물의 속성. 작가 유민예는 이런 속성을 자세히 관찰하고 실과 바늘을 통해 표현해낸다.

“저의 작업은 공간 설치 작업이 많은데요. 설치 방식에 따라 같은 작품일지라도 다른 형태,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매력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작품제작 방식을 설명해볼까요? 작품이 설치될 공간을 먼저 살펴보고요. 기획안을 짜서 협의한 후 최종 선택된 시안으로 작품 제작을 시작합니다. 먼저 핸드 크래프트 위빙 방식으로 조각 단위 패널들을 제작하고요. 이후 면적에 맞춰 텍스타일 모듈 패널을 이어 붙여 형태를 만듭니다. 작품 형태가 갖춰지면 현장에서 설치 위치나 작품 볼륨감 등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간 내의 밸런스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작품에 따라 제작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작은 오브제는 얼마 걸리지 않지만 9m 길이의 대형 줄기 작업은 쉬지 않고 꼬박 작업

1
설치 작업이 대부분인 작가의 전시. 설치 방식에 따라 같은 작품도 다른 형태, 다른 분위기를 풍길 수 있다.

해서 2달 정도 걸린다. 모든 과정을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완성된 작품에서는 끊임없이 증식해가는 식물의 생명력, 움직임이 상상되는 역동성, 소재인 섬유가 가진 따듯함과 섬세함을 모두 느낄 수 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컨셉의 식물 오브제. 그녀는 이런 작품의 모티브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식물의 성장과 운동력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아티스트

처음 밍예스 작가가 텍스타일 오브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학생 시절 떠났던 덴마크 여행에서부터였다. 덴마크에서 월 행잉이나 태피스트리가 벽을 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 새로운 가능성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그녀는 텍스타일 오브제가 주는 질감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곧 실을 엮어 식물의 증식과 운동성, 역동성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초기 작업인 이끼 시리즈(moss series)에서 최근 작업인 줄기 시리즈(stem series)와 hugelkultur까지 제 작품의 주제는 줄곧 식물이었어요. 식물이 성장하면서 발현되는 식물 운동 이론을 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나선형 형태로 돌돌 말린 조형을 탐구하는 중인데요. aestivation(식물학-잎들의 배열)

작업도 이 중 하나예요.” 줄기 시리즈(stem series)에서는 식물이 빛을 향해 구부러지는 굴광성, 중력의 영향을 받아 땅에 뿌리를 깊이 박는 굴중성 등을 통해 식물이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aestivation(식물학-잎들의 배열)’ 작업은 찰스 다윈의 ‘식물의 운동력’에서 채용한 아이디어로 식물의 원형화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녀는 이처럼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식물을 관찰할 뿐 아니라 탐구한다. 관련 논문도 읽고 자료를 기록한 뒤 작품 활동에 활용한다. “식물이 반복적으로 패턴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아요. 잎맥이나 피보나치수열, 줄기의 회전 운동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알고리즘과 구조적 형태는 수평, 수직으로 직조하여 패턴을 만들어가는 텍스타일 방식과 비슷해서 시각적으로 치환할 수 있어요. 저는 세계의

2
밍예스 작가는 식물이 성장하면서 발현되는 식물 운동 이론을 그녀의 독창적인 방식대로 표현하고 있다.

식물학 이론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찾는 것을 좋아해요. 식물을 조사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론들이 많거든요. 이를 저만의 미감으로 치환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관객들이 직관적으로 식물의 기괴하지만 발랄한 면모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리봉과 나리분지숲에서 만난 식물들

초록 에너지를 좋아하는 작가는 관찰을 위해 숲도 많이 찾아간다. 야생 산에 이끼, 버섯 리서치를 하러 다니거나 일상에서도 숨겨진 자연들을 유심히 돌아본다.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는 이런 식물들을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유용한 도구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숲 중 가장 기억나는 숲이 어딘지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한다.

**식물이 반복적으로 패턴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아요.
텍스타일 방식과 비슷해서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치환해낼 수 있거든요.**

3
실과 바늘로 직조해가는 작업 방식은 식물이 성장해가는 방식과 닮아있다.

4
앞으로도 식물의 기묘하고 독특한 운동성, 생명력 등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싶다.

“내셔널지오그래픽팀과 함께 했던 5박 6일 숲 탐사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나리봉과 나리분지 숲에 갔었는데요. 섬 지형과 해양성 기후 때문인지 원시림에 독특한 식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실사리와 참솔이끼 등을 관찰할 수 있었죠. 특산식물이라는 울릉 국화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녀는 런던에서 영국왕립예술학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곳에서 다양한 텍스타일 실험 및 색감 탐구를 하며 텍스타일에 대해 좀 더 공부해갈 예정이다. 이렇게 쌓인 역량은 식물의 독특한 운동성, 생명력, 초록 에너지들을 표현하는 데 아낌없이 쓰일 것이다. 다음에 구현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작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한다. “줄기의 형태지만 수학적으로 반복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는 식물. 선인장이 궁금해요. 지금 열심히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라나던 텍스타일 이끼, 어느 날 이끼는 나선형 줄기가 되었고 회전하는 ‘aestivation’이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은 어느 날엔 선인장이 될 것이고 도심을 뒤덮는 이름 모를 식물도 될 것이다. 그렇게 산에 작가, 밉에스의 독특한 식물 오브제는 넘치는 창작자의 의욕만큼 끊임없이 증식해갈 것이다. 그러니 기대하시라. 화색빛 도심을 건다가 문득, 기묘하지만 발랄하고, 독특하면서도 편안하고 거대하면서도 귀여운 초록 에너지를 만나게 될 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밉에스라는 발랄하고 독특한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한번쯤 떠올려 봐도 좋겠다. ☁



3



4

그 많던 마스크는 다 어디로 갔을까?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메이크 임팩트(MAKE IMPACT)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내놓은 패딩 ‘코트19’, 인도 코로나19 치료센터의 매트리스, 국내 대기업의 옷걸이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된 의자까지. 각기 쓰임이 다른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일회용 마스크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유는 명백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인류를 지키는 일회용 마스크가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골칫거리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2021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폐마스크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자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활발한 움직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폐마스크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가치 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수익을 내기 힘든 탓이다. 그래서 ‘예술 작품 같다’라는 구매자들의 찬사 속에 폐마스크 업사이클 제품을 완판시킨 메이크 임팩트의 존재가 더욱 각별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메이크 임팩트



#메이크 임팩트

#긍정적인 영향력

실패로 끝난 첫 번째 도전이 남긴 깨달음

수많은 ‘일회용품’과 마찬가지로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마스크의 핵심인 필터와 마스크 줄의 재료가 각각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우레탄(PU)이고 컷등의 재료가 철심이기 때문이다.

폴리프로필렌은 땅에 묻으면 분해되기까지 450년이 걸리고, 태우면 1톤당 3.07톤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페트병 1톤을 태울 때보다 온실가스를 36%나 많이 배출하는 셈이다. 마스크 줄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은 분해에만 300년이 걸릴 뿐 아니라 각종 생물의 몸에 엉겨 고통을 주기 일쑤다. 컷등 부분의 철심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폐마스크를 재활용하려면 거름망으로 철심부터 분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드는 탓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은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내놓았지만 실제적인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메이크 임팩트 환경인 대표는 폐마스크 활용에 겁 없이 달려들었다. 출발은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과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코로나19 시대에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한 것에 심각성을 느꼈어요. 자연스레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심을 두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마스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머리를 맞댄 결과 식물 씨앗이 들어있는 한지 마스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생분해되는 한지로 마스크를 만들고 씨앗을 넣으면 폐기된 마스크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후 환경인 대표는 마스크 제작 공장을 방문한 끝에 ‘마스크 자투리’라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한 후 이를 활용해 뭐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1
환경과 디자인에 꾸준히
전착해오고 있는 업사이클링
디자인 기업, 메이크 임팩트.

2

비누 트레이, 인센스 홀더 등
플리마켓에 들고 간 업사이클링
제품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3

플리마켓,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등의 경험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마스크 자투리로 예술 작품 같은 제품을?

마스크 자투리라는 소재를 찾았지만 환경인 대표와 동료들의 고민은 깊었다. 그러던 중 마스크 자투리로 스툴(Stool,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서양식의 작은 의자)을 만들어 화제가 된 가구 디자이너 김하늘의 인터뷰 영상이 힌트가 됐다. 영상 속 작업 과정을 참고해 폐마스크에 열을 가해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실험을 했고 마침내 비누 트레이, 인센스 홀더 등을 하나하나 손으로 제작했다. 하지만 환경인 대표는 바로 제품을 출시하는 대신 제로웨이스트 플리마켓에 참여해 소비자들의 반응부터 살폈다. 첫 번째 도전의 실패를 교훈 삼은 것이다. 플리마켓으로 향하면서는 “하나도 안 팔려도 실망하지 말자.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대신 사람들의 의견은 들을 수 있잖아?”라며 동료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날 가지고 간 제품을 모두 판매한 것은 물론 예약 판매가 성사됐고 약간 하자가 있어 한쪽에 둔 제품까지 50% 가격에 ‘완판’됐다. “마스크 자투리로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라는 소비자들의 질문은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 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의 소재나 마스크 쓰레기의 처리 방식에는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소재에 상관없이 잘 만든 제품이라면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메이크 임팩트의 철학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플리마켓 참여를 시작으로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도시재생 벤치 리디자인까지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찾는 데 집중했죠.”

#마스크 자투리 업사이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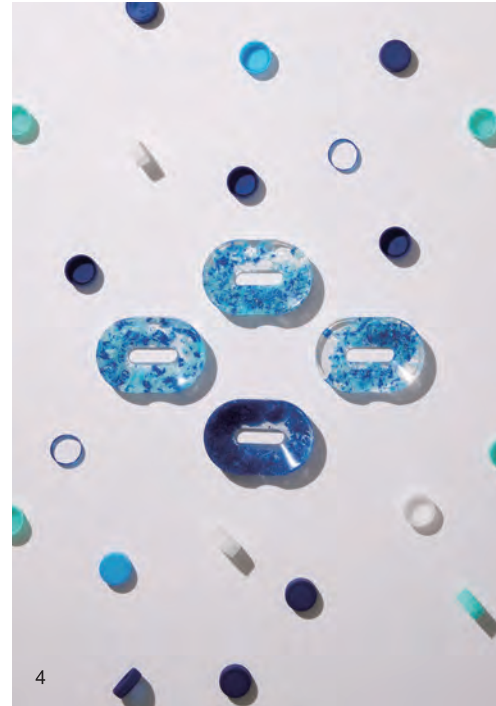
#각자의 방식으로 친환경 실천



2



3



4



#병뚜껑 업사이클링

#환경과 디자인

친환경 실천, 조금씩 시작해도 괜찮아요!

환경인 대표의 말처럼, 메이크 임팩트는 꾸준히 환경과 디자인에 천착해 왔다. 그 결과 마스크 자투리를 재활용한 화분, 인센스 홀더, 비누 트레이를 비롯해 병뚜껑이나 폐어망을 업사이클한 제품 등 다양한 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중 병뚜껑 업사이클 제품들은 크기가 너무 작아 재활용이 되지 않던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시민들이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로 병뚜껑을 모아 보내면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이 세척하고 건조한 후 색상별로 분류한 다음 팔찌와 키링 KIT, 비누 트레이, 인센스 홀더 등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메이크 임팩트의 제품이 시선을 끄는 이유는 ‘가치 소비’ 때문만은 아니다. 이에 대해 환경인 대표는 “친환경이라는 딱지가 없어도 갖고 싶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한다”라고 강조한다. 그래야 메이크 임팩트의 슬로건인 ‘Make Positive Impact’ 그대로, 좀 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끼칠 수 있다고 믿는 덕분이다.

“저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극단적인 관점과 제한은 역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은 몇몇의 관심이나 노력만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요. 대신 저희 제품과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친환경을 실천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일상에서 친환경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높여 활동하는 이들을 볼 때면 소소하게 해오던 일들이 보잘 것 없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메이크 임팩트의 노력이 다른 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좋겠다”라는 환경인 대표의 바람이 더 귀하게 다가왔다. 마스크에서 고리를 떼어내는 것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괜찮다고 응원해주는 것 같아서다. 메이크 임팩트의 다정한 응원에 힘을 얻어 매일 한 걸음씩 친환경에 가까워질 작정이다. ☺

4

친환경이라는 딱지가 없어도
갖고 싶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한다.

5

플라스틱 병뚜껑 업사이클링은
수거에서 세척, 분류까지
지역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이토록 매혹적인 숲 콘텐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국민이 선정하고 산림청이 발표한
100대 명품숲을 소개합니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황토가 다 드러날 정도로 황폐했던 우리 국토는 몰라보게 푸르러졌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품숲을 이루었습니다. 산림청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가꾸어온 숲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다양한 산림복지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번에 확정, 발표한 것이 국민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입니다. 과연 어떤 숲이 100대 명품숲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더 자주, 더 가까이 숲을 즐기는 사람들

우리 국민은 숲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있을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이나 숲길을 이용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8%인 약 3,229만 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이들이 숲길을 찾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75%로 가장 많았고 산을 걷는 것이 좋아서가 49%, 경치, 분위기가 좋아서가 48%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숲을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등산·트레킹 국민의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민이 숲을 즐기는 형태는 등산 위주가 8.1%, 트레킹 위주가 14.3%로 나타났습니다. 오르는 것에 목적을 두던 산림 휴양 형태에서 즐기는 산림 휴양 형태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죠. 주로 방문하는 산을 묻는 질문에 이름난 산보다 집 근처 야산, 근교 산이나 바위를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편하게, 가깝게, 자주 찾을 수 있는 숲 수요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매혹적인 숲 콘텐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은 어디?

숲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산림청은 국민이 숲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 숨어있는 명품숲을 선정, 개발하여 함께 즐기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입니다. 그렇다면 명품숲은 어떤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을까요?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인제 자작



1
숲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 발표했다.

2
숨어있는 명품숲을 개발하여
온국민이 함께 즐기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나무숲 등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이미 발굴한 바 있습니다. 마침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여기에 추가로 50개 명품숲을 더해 100대 명품숲을 만들어보기로 했죠. ‘100대 명산’에 이어 성공적인 숲 콘텐츠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100대 명품숲 선정’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했구요.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숲 50개를 더 찾아내 100대 명품숲을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이 숲들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산림 휴양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된 산림휴양형 숲이 45개소, 조림 및 숲

가꾸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산림경영형 숲이 29개소,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보전한 산림보전형 숲이 26개소입니다. 지역 분포로 보면 강원 25개소, 경북 12개소, 경남과 전남 각 10개소, 충북 9개소, 경기 7개소, 제주와 전북 각 6개소, 서울과 충남 각 4개소, 대전·부산·울산 각 2개소, 인천 1개소로 나타났구요. 이중 국·공유림이 77개소, 나머지는 사유림 또는 국·공·사림·복합림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명품숲 선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주변 숲들도 찾아올 사람들을 기대하며 반기고 있어요. 수요자에게나 공급자에게나 명품숲이라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생겨난 것이니까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선정된 숲에는 독일과 한국정부가 협력 사업으로 함께 조성한 울산 울주의 ‘소호리 참나무숲’과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보호림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는 충남 태안 ‘안면도 승언리 소나무숲’, 아름다운 숲을 가꾸어 숲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故) 진재량님의 전남 화순 ‘무등산 편백숲’, 기업이 앞장서 가꿔낸 충북 충주 ‘인등산 인재의 숲’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 혹시 내가 갔던 그 숲도 100대 명품숲 아닌가?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산림휴양형 숲 45개소, 산림경영형 숲 29개소, 산림보전형 숲 26개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보호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충남 태안 ‘안면도 승언리 소나무숲’.



4
숲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故) 진재량님의 전남 화순 ‘무등산 편백숲’.

궁금하시다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리스트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국토녹화를 시작한 후 50여 년 잘 가꿔온 100대 명품숲은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유와 휴식, 치유의 경험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콘텐츠이기도 하죠. 산림청은 아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숲들을 찾아 이름을 붙이고 관광자원으로 개발, 육성해가고자 한다고 100대 명품숲 확정 발표 이유를 설명했어요. 숲이 개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숲을 가꾸는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런 노력은 결국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어주겠죠? 이를 위해 산림청은 앞으로 관련 책자와 영상 콘텐츠, 안내판 등을 만들어 국민이 보다 쉽게 명품숲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명품숲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리스트를 펴두고 가까운 곳을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당장 이번 주말이라도 그 숲으로 가벼운 산책을 떠나보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버리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니까요. 물론 가보고는 싶지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밀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보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우리의 명품숲 몇 군데가 디지털 기기 안에 펼쳐질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엔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나 아름다운 명품숲이 있다는 사실어요. 🌲

QR 코드를 통해
국내 명품숲 2군대를
미리 방문해보세요!



대관령 특수조림지



태안 승언리 소나무숲

대중음악 가사로 숲을 만나다

가사부터 마음에 꽂히는
숲 플레이리스트

글 매거진 숲 편집실 협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MUSISTICS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정서와 감성을
담아내는 대중음악 가사. 참신함과 독특함, 감정이입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노래 가사는 한 편의 시처럼 읽히기도
한다. 이 시대 대중음악 작사가들은 숲을 어떤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을까? 최근 플레이리스트에서 자주
들게 되는 숲 관련된 음악들을 가사로 만나보기로 한다.



숲

최유리

1:43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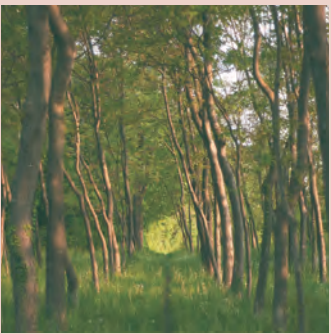
◀ ▶ ▷

※ 수록된 가사는 [KOMCA 승인필]을 획득했습니다.

숲

최유리 (작사가: 최유리)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구석이어도 돼
길을 터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젠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 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터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날 네게 뒤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늘 이래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 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면
기억할게 내가 물에 나와 있어
그때 난 숲이려나



1:48 3:53
◀ ▶ ▷

나무

카더가든 (작사가: 카더가든, 유라(YOURA))

인사 하네요 근심없게
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딘 목소리와 어설픈 자국들
날 화려하게 장식해줘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네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뜻한 그림이 되겠조, 그럼 돼요
웃어 줄래요 사진처럼
수줍은 맘이 다 녹아내리게
무력한 걸음과 혼잡한 TV 속
세상없이 또 울기도 해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네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뜻한 그림이 되겠조, 그럼 돼요
밤새 모아둔 아스라이 쌓인
고운 마음도 다 가져가세요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죠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네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뜻한 그림이 되겠조, 그럼 돼요



2:27 4:11
◀ ▶ ▷

언덕나무

이승윤 (작사가: 박진호, 남혜승)

높은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편한 그늘이었어
어느덧 내가 어른이 다 되어버린 지금
아직도 내 안에 다 자라지 못한
머물러 남아있는 기억
You 언제나 늘 같은, 나의 가장 자릴
떠난 적 없는 너에 대한 기억
어느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그늘이었고
마주 닿으면 쓰라리는 상처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없는 떨어지지 않는 딱지 같아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 내 가장 좋았던 날
늘 한 칸이 아렸던
마치 어딘가에 두고 온 듯한 잊을 수 없는 기억
어느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그늘이었고
마주 닿으면 쓰라리는 상처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없는, 미워할 수 없는
너의 이름이 내게 들리면
또다시 내 하룬 너에게
치어 살 것 같아서 두려워
높은 언덕 홀로 있는 구름나무 같은
네게 기대고 싶어
마주 닿으면 쓰라리는 상처 같은 이름
떼어 낼 수도 없는 떨어지지 않는 딱지 같아

숲속 우체통

김동석 서울시 동대문구



‘숲의 건강한 생명력을 맛보다’ 기사를 통해 임산물 먹거리가 종류도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 호두, 산딸기, 머루 등 숲의 선물이 더없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건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의 임산물 먹거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점차 높아진다니 그 또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확하는 임산물 먹거리를 좀 더 자주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희용 경기도 수원시



〈브런치@숲〉의 ‘잘 여문 밤과 대추로 만든 브런치’ 기사를 읽으며 가을의 맛을 느낍니다. 밤 찐 빵과 생대추 샐러드를 레시피에 따라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먹어볼까 합니다. 가을이 주는 최고의 먹거리 식사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간단한 재료와 만들기 쉬운 레시피 과정 소개는 매거진 숲의 자량이자 맛과 멋입니다. 마지막에 실어주신 ‘청정 숲푸드 79가지’도 참고할만한 좋은 정보였습니다.

박정숙 서울시 송파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버려진 옷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다가 ‘옷을 살리면 지구 환경이 되살아난다’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옷이 나오기까지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특히 화학섬유가 70%나 되는 마당에 정주연 대표가 착안한 21% 파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자기 옷을 1/5 정도 내놓고 바꿔 입는 이런 행사는 환경 오염에 대한 탄소 줄이기, 자원 절약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가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최준혁 대구시 동구



숲이 주는 식재료와 그것을 식탁에 올리는 세프, 임산물 축제, 여행안내가 풍성한 호였습니다. 특히 사찰음식은 이번 호의 백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렌드의 숲〉 발우공양의 사찰음식은 임산물이 주재료로 많이 쓰이던데요, 계절과 토질이 반영된 이런 음식들을 보면 삼국 시대부터 지속되어온 우리 민족의 나물 사랑도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산림 먹거리가 계속 발전, 계승되기를 기원해봅니다.

강유나 대전시 서구



표지의 갈색과 형광 주황색이 너무 멋스러워 받는 순간 눈이 정말 호강한 느낌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충남 청양 천장호 둘레길 소개가 좋았어요. 청양은 잘 몰랐는데 예쁜 둘레길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꼭 가볼게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숲도 가끔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예쁘고 멋진 사진들을 스크랩하고 있거든요. 힐링 소식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진 서울시 서대문구



〈매거진 숲〉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사찰음식 파인다이닝 '발우공양'과 제가 일하는 업장 '오빠뽀베르'가 함께 소개되어서 좋았습니다. 배 채우기에만 급급한 현대 사회에 음식을 치유의 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모처럼 음식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꼈어요. 특별하게 좋았던 것은 제가 채식인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기후변화에 따른 숲의 먹거리 변화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November + December
2023

세르게이 에세넨의 시

<나는 첫눈을 밟고 거닌다> 중에서

나는 첫눈을 밟고 거닌다.

마음 속에는 화 불타오른 힘의 은방울꽃.

바람이 나의 길에서 푸른 촛불처럼

별에 불을 켜다. <중략>

오, 숲의 조는 듯한 뿌연환이여!

오, 눈에 덮인 발의 쾌활함아!

못 건디게 두 손을 모으고 싶어지구나

버들의 나무 허벅다리 위에서

1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우 편 엽 서



받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대변인실 <매거진 숲> 편집부 앞

3 5 2 0 8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November + December

동서트레일 서쪽 구간
첫 삽 뜨다



동서트레일 서쪽 구간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
다.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착수행사를 개
최한 후 첫 삽을 뜨는 서쪽 구간은 우리금융그
룹으로부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금
8억 원을 지원받아 조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
부, 기업 등 민간협력 체계 구축으로 조성되는
동서트레일은 한반도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
어 지는 길로 우리나라 최초의 배낭도보여행(백패
킹) 장거리 트레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북 김천 이영인씨



호두 주산지인 김천에서 1,600그루 호두나무를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이영인씨가 11월의 임
업인으로 선정되었다. 그가 생산하는 우리호두는
K-FOREST FOOD 브랜드로 지정되고 유기농
인증을 받을 만큼 품질이 좋다. 또한 그는 알호
두, 간호두, 호두기름 등의 제품을 개발, 판매하
고 '시월넛'이라는 자체 상표를 브랜딩하기도 했
다. 마침 이달의 임산물로도 선정된 호두, 한 번
씩 맛보시기를 권한다.

Forest News

숲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두 달간 산림청에 있었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2023년 '우수 학교숲'
7개소 선정



산림청은 지난 10일 도심 속 생태학습 공간인
'우수 학교숲' 7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대상
으로 선정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여중은 '혜음
뜰(지혜의 숲)'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숲 조성
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신규조성분야에 울산 월봉초, 광주 광주
동초, 제주 대정중 등이 선정되었으며, 활용·
사후관리분야에 경북 물야초, 인천 인화여고,
대구 신명고 등이 선정되었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로 전국에
25개 실습정원 조성



정원분야, 취·창업 준비 전공자로 구성된 팀이
정원 작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시·군·구내 유휴
부지에 실습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드림 프로젝트'
가 성황리에 끝났다.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6개
월간 디자인, 조성, 관리한 아름다운 정원 25개
소가 지역주민에게 되돌아오게 되었다. 산림청
은 앞으로도 정원드림 프로젝트와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
정이다.



어쩌면 우리의 매일이 숲이 아닐까요?

숲을 먹고, 숲에 앉고, 숲에 담고, 숲을 읽고
그렇게 우리는 숲에서 삽니다.

당신의 매일이 ‘ 숲 입니다

숲이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EVERYDAY WITH FOREST

2023 11+12월호 독자의견

이름

1.이번 호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주세요.

전화

이메일

2.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3.이번 호에서 가장 아쉬웠던 내용과 이유는?

•
매월 말일까지 엽서 또는 이메일
(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 숲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4.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